

데이트폭력 피해가 경계선 성격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를 통한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의 조절된 매개효과

이 기 은 이 종 현 김 도 연*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 피해 경험이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를 경유하여 경계선 성격 경향성으로 이어지는 경로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인관계적 외상의 한 형태인 데이트폭력 경험이 경계선 성격 경향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개인의 회복 자원이 되는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참가자들은 데이트폭력 경험이 있는 전국의 만 20~39세 미혼 여성 436명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데이트폭력 피해 경험,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수준, 경계선 성격 경향성,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의 문항에 응답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데이트폭력 유형별 영향력을 검증하였고, Process Macro 3.1을 활용하여 매개효과, 조절효과,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변인들 중 데이트폭력 피해 경험과 경계선 성격 경향성,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수준에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이들은 회복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데이트폭력의 유형 중 정서적 폭력만이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및 경계선 성격 경향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데이트폭력 피해와 경계선 성격 경향성의 관계에서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의 완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넷째, 데이트폭력 피해 경험이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경로에서는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데이트폭력 피해를 완전매개한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수준이 경계선 성격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데이트폭력과 경계선 성격 경향의 관계에서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의 간접효과가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변화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의 상담 및 심리치료 개입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후속연구를 위해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데이트폭력 피해,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경계선 성격 경향성,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도연 /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 (04032) 서울 마포구 양화로 125

Fax : 02-6280-8255 / E-mail : stoptrauma@hanmail.net

두 개인 간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데이트 상황에서는 사랑을 기반으로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는 모습이 보편적으로 기대되는 바이지만 때로는 상호작용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이별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데이트 폭력을 규정하는 범위는 시대와 학자마다 다양하여 어디까지를 폭력으로 정의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에서는 데이트폭력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어 ‘친밀한 관계에 대한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이라는 용어로 규명하려는 시도가 있었고(Sabina & Straus, 2008), 다른 한편에서는 해당 개념이 문제의 형태나 개입 방안에 차이가 있는 가정폭력을 포함한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혼인을 하지 않은 두 개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한정지를 필요성이 있다 주장하고 있는 등(홍영오, 연성진, 주승희, 2015),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감을 주거나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등 과도하고 부당한 형태로 주관적 고통감을 유발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이는 모두 데이트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O’Keefe, 2005).

데이트폭력과 관련한 연구가 막 시작되던 시기에는 폭력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과 폭력적 행동이 유발되는 원인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최근에는 피해자의 특성과 후유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러 다양한 폭력 범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폭력의 후유증은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피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신체적 폭력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주어 자존감을 낮추거나, 헐박이나 위협을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등과 같은 정서적 폭력의 후유증은 직접적인

상해에 비해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결과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Follingstad, Wright, Lloyd, & Sebastian, 1991). 특히, 데이트폭력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양상이 있으며 폭력의 형태나 심각성도 시간이 지날수록 과도해지는 측면이 있는 반면(Coker et al., 2002; Dutton et al., 2006), 데이트 상황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두 개인 간의 사적인 영역으로 여겨져 피해자 스스로도 피해 경험을 겉으로 드러내려 하지 않으려 하거나(Kaura & Lohman, 2009), 주변에서도 심각하지 않은 일로 치부하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임채영, 정소영, 이명신, 2010; Witte & Kendra, 2010). 이에 따라,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의 심리적 후유증은 종종 특별한 처치 없이 방치되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한때 친밀했던 파트너로부터 데이트 상황에서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다른 범죄 피해자와 유사하게 이후 장기적인 삶에서 사건과 관련된 침습적 기억, 회피적 태도, 인지와 감정의 부정적 변화, 각성 및 반응성의 변화와 증가 등의 심리적 고통감을 호소하는 정신질환의 한 유형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의 증상을 경험할 수 있음이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공통된 결과로 보고되고 있다(Campbell & Kendall-Tackett, 2005; Ford, Stockton, & Green, 2006; Sabina & Straus, 2008; Walker, 2012).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DSM-5; APA, 2013)에 제시된 PTSD의 진단기준에 따르면,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부상, 성폭력의 노출 등의 외상성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경우를 전제로 하며, 외부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일회성 사건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다회성 사건이 모두 포함되는 바, 데이트폭력의 형태도 외상성 사건으로 판단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다만, 외상성 사건에의 후유증을 호소하며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경험적 근거에 따르면, 대인관계에서 발생한 외상적 경험에 의한 것인지, 외부 환경에서 발생한 외상적 사건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사람들이 호소하는 심리적 고통감이나 발현되는 증상에 차이점이 있어 증상의 원인이 환경적 요소인지 대인관계적 요소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Cloitre, Garvert, Brewin, Bryant, & Maercker, 2013).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Herman(1992)도 대인관계에서의 외상 경험 피해자들이 보이는 행동적, 정서적 기능에의 손상 및 대인관계 문제의 양상이 기존의 PTSD 증상에 충분히 포함되지 않음을 주장하며 새로운 진단체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대인관계에서 일어난 외상적 사건의 구체적인 후유증 양상은 피해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심한 우울과 불안감을 경험하거나,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며, 자존감이 낮아지고, 타인과 세상에 대한 불신감이 생겨 피해의식과 적대감을 형성하는 것 등으로, 이는 향후 사회적 활동에서의 위축과 사회적 관계의 지속적인 단절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oon, Steele, & Van der Hart, 2011; Dorahy et al., 2009; Street & Arias, 2001; Wilson et al., 2006). 이러한 관계적 외상의 후유증을 기존의 PTSD 증상과 구분하기 위해 Herman(1992)은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Complex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PTSD)의 개념을 제안하였고, Pelcovitz 등(1997)은 이를 ‘달리 명시되지 않는 극도의 스트레스 장애(Disorders of Extreme Stress Not

Otherwise Specified, DENOS)’로 정의하며, (1) 정서 조절의 문제, (2) 주의 및 의식의 문제(해리 등), (3) 자기 지각의 문제, (4) 타인과의 관계 문제, (5) 신체적 기능의 문제, (6) 의미상실의 문제의 6가지 정신생물학적 시스템의 손상과 관련된 증상을 정리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대인관계적 외상에 의한 후유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장애를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아동기 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Taylor, Asmundson, & Carleton, 2006), 아동기에 발달적 외상 경험이 없었던 경우에도 성인기의 만성적이거나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대인관계적 외상에 노출될 시, PTSD 진단을 위해 요구되는 증상과는 조금 다른 형태인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의 증상을 보일 수 있으며(Van der Kolk, Roth, Pelcovitz, Sunday, & Spinazzola, 2005), 이는 장기적으로 이미 형성된 성격 구조에의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Dorrepaal et al., 2014). 이와 더불어, DENOS에서 제시한 기준(Pelcovitz et al., 1997)과 ICD-10-CM(2020)의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관련 진단기준에서도 전연령층의 관계 외상 경험을 포괄하고 있어 아동기에 지속적으로 경험한 외상적 사건에만 한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도 관계에서의 외상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와 관련된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면 ‘대인관계에서의 외상후 스트레스’의 특수성이 부과되어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Ford et al., 2006).

최근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불안정한 정체감 및

낮은 자존감이 발견되었으며, 유기 불안에 의한 높은 관계의존성이 있어 폭력적 상황을 포함한 취약한 환경적 요소들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수록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적절한 대처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문제 개선에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특성이 있다(Courtois & Ford, 2013). 안타깝게도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이후에도 피해자 스스로가 가해자와의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박경은, 유영권, 2017), 피해자가 역으로 상대에게 정신적 폭력을 행사한 경험이 있다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고(서경현, 2004),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파트너를 선택하는 데 있어 공격적인 사람에게 이끌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Dutton, 2007), 관계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폭력 경험을 단절하지 못하고 지속하게 되는 피해자들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관점이 점차 제시되고 있다. 특히,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이 보이는 구체적인 증상인 정서조절 문제, 자기파괴적인 행동, 충동적 행동, 부적응적인 대인관계 방식 등이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양상은 대인관계, 자아상, 정동에서의 불안정성 및 과도한 충동성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정의되는 경계선 성격장애(APA, 2013; Taylor, Asmundson, & Carleton, 2006)와 공유되는 측면이 많고, Taylor 등(2006)에 따르면,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에게서 종종 경계선, 편집성, 조현성 등의 성격장애 유형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는 보통 불안과 우울, 분노감을 더 빈번히 호소하는 단순(대인관계적이지 않은) 외상 경험에 의한 증상과는 분명히 다른 양상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관계적 외상 경험 이후 피해

자들에게도 해당 성격적 특성들이 발현될 가능성이 시사된다.

관계적 외상의 결과인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및 경계선 성격 장애가 발현되는 원인으로 주로 아동기에 경험했을 성적,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 같은 발달적 외상 사건에 주의를 기울이는 관점(Zanarini et al., 2002)이 우세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동기 외상 경험과는 상관없이 성인기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대인관계적 외상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도 경계선 성격 특성이 발현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Grossman et al., 2003; Wingefeld et al., 2011). 더불어, 아동기부터 지속되어 온 외상 경험과는 별개로 외상후 스트레스와 경계선 성격 장애가 높은 수준의 상관으로 공병률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Harnerd, Rizvi, & Linchan, 2010), 경계선 성격 장애의 발병에 항상 아동기의 외상적 경험 여부만을 강조하는 것은 해당 성격 장애의 잠재적 위험군이 과소추정될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한편, 대인관계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피해 상황에 노출되었다 할지라도 모두가 경계선 성격장애가 되지 않으며, 외상적 사건 유무 여부보다는 외상적 경험에 대해 개인이 부과한 의미 양식이 더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개인차를 발견한 연구결과들도 있어(Arntz, 1994; Cloitre et al., 2011), 외상의 유형의 차별점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외상적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개인의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외상적 경험에 의한 피해 수준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여러 내외적 요인 중 개인 외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이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

다(Tedeschi & Calhoun, 2004). 사회적 지지는 타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유형의 긍정적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적응적인 대처 방안(Zoellner & Maercker, 2006) 및 개인적 자원인 강인함, 통제감, 자기효능감(Benight & Bandura, 2004)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수림(2012)은 대인적 외상인 복합 외상을 경험한 피해자들이 일반적 외상 피해가 있는 사람들에 비해 사회적 지지 수준을 낮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어 외상에 대한 고통감을 과도지각하게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회복에 필요한 문제중심적 대처방안의 활용을 낮추고 외상 후 회복을 더디게 한다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주관적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치료 전략에서 주요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대인적 외상 경험에 의해 유발되는 경계선 성격의 발현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서, 경계선 성격특성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인 거절민감성과 높은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Moore, Varra, Michael, & Simpson, 2010), 사회적 지지는 복합 외상에 의한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회복을 돕는 완충 효과가 있고, 대인적 외상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성격적 취약성을 완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몇몇 연구에서는 외상 후 회복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효과성을 검증하지 못하기도 하여(Linley & Joseph, 2004; Prati & Pietrantonio, 2009),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사회적 지지와 더불어 개인 내적인 자원으로 스트레스 경험 및 위기 상황 등 부정적인 환경에서 유연하고 적응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회복탄력성 또한 외상 후 회복을 위한 주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Fletcher & Sarkar, 2013). 회복탄력성이 높은 경우, 외상적 경험 이후에도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 외상후 성장에 도달한다는 결과를 밝힌 연구들이 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인의 장점을 지각하는 것과 타인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에스터, 김정규, 2019; Janoff-Bulman, 2004, Nishi, Matsuoka, & Kim, 2010). 이러한 회복탄력성에는 통제력과 관련된 자기조절력, 사회적 지지를 형성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사회성, 유연하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환경 적응력인 낙관성을 포함한 자기효능감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대인적 외상을 경험한 피해자들이 종종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하고, 세상 및 타인으로부터의 철회와 역기능적 관계를 맺으며, 정서 및 경험에의 유연한 조절에 어려움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불안정한 자기상, 부정적이고 혼란스러운 정서, 관계 문제 등이 주요한 특징인 경계선 성격특성의 측면을 살펴보면,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치료적 개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이 시사된다(이아람, 김남재, 2012; Van Dijke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적 외상의 한 형태인 데이트폭력 경험이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유사한 증상을 공유하는 경계선 성격 경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데이트폭력 피해 경험이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과정 및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수준이 경계선 성격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를 경유하는 간접효과가 개인의 회복 자원이 되는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데이트폭력에 관련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20대의 여성들에게 데이트폭력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강조하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이 실시된 것을 볼 수 있다(박경은, 유영권, 2017; 서경현, 2003, 2004). 하지만 최근에는 여성의 결혼 평균 연령이 높아져, 30대에서도 데이트폭력의 발생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어 좀 더 넓은 범위의 연령대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후유증의 관련성 및 회복 요인을 살펴보고, 적절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손상이 우려되는 상태라면 상해나 재물손괴 등 명백히 곁으로 드러나는 피해 상황이 없다 할지라도 데이트폭력 피해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최신의 관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데이트폭력의 유형을 선정하였다. 데이트폭력에 관한 연구가 실시된 초기에는 곁으로 피해 상황이 드러나는 신체적 폭력에만 국한시키는 경우가 있었으나(O'Keefe, 1997; Sugarman & Hotaling,

1989), 최근 신체적 상해 및 성적 폭력의 피해 형태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심리적 고통감을 야기할 때는 어떠한 형태이든 데이트폭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면서(서경현, 김유정, 정구철, 양승애, 김보연, 2010; Manganello, 2008), 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이 추가된 개념을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어(Eshelman & Levendosky, 2012), 본 연구에서도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의 유형을 기본 구성 개념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스토킹과 유사한 형태로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통제하려 하는 행동 유형도 폭력의 범위로 규정하려는 시도가 있고(WHO, 2010), 국내에서 실제 경찰에 신고 되는 데이트폭력 중 '감금 및 납치'의 형태와 사기와 유사하나 의도성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기로 간주하기에는 어려운 '경제적 폭력',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취하는 '사이버 폭력'의 형태도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김도연, 이기은, 이종현, 2017).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명백하게 곁으로 드러나는 피해와 더불어 심리적 후유증이 포함된 것으로 그 범위를 확장시켜 살펴보고자 한 바, '스토킹 및 행동통제', '경제적 폭력', '사이버 폭력', '감금 및 납치'의 유형도 포함하여 총 7가지의 데이트폭력 유형을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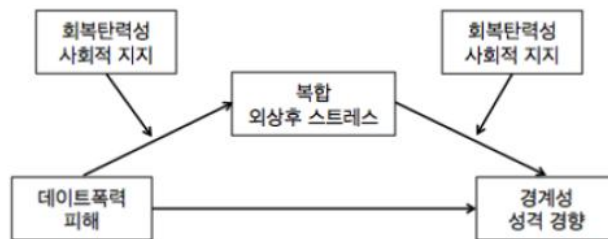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교제 중이거나 이전에 교제하던 경험이 있는 만20세~39세의 미혼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들은 조사전문기관인 마이크로엠브레인에서 확보하고 있는 패널 약 110만명(2017년 기준)을 대상으로 인구비례 할당추출방법을 활용하여 전국 단위로 2주 간 무작위 모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 피해 정도가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및 경계선 성격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력만 확인하고자 한 것으로,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와 경계선 성격특성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 유년기 가정폭력 경험(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비언어적 폭력, 성폭력, 강제분리경험)이 없었다고 보고한 436명의 자료만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응답자들의 연령 분포는 만 20~24세 192명(44%), 만 25~29세 118명(27.1%), 만30~34세 80명(18.3%), 만35~39세 46명(10.6%)이었다.

측정도구

데이트폭력 피해

데이트폭력 피해 여부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Straus, Hamby, Boney-McCoy와 Sugarman (1996)의 갈등책략척도(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상대방이 갈등상황에서 자신에게 사용했던 갈등책략 39문항과 반대로 자신이 상대방에게 사용했던 갈등책략 39문항의 총 7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행했던 책략의 문항만 발췌하여 응답자들이 경험했던 피해 정도만 평가하도록 하였다. Straus 등(1996)의 CTS2 하위유형에는 ‘협상(negotiation)’, ‘심리적 공격(psychological aggression)’, ‘신체적 공격(physical assault)’, ‘성적 강압(sexual coercion)’, ‘상해(injury)’의 5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사성을 감안하여 상해를 신체적 공격에 포함시켰고, 긍정적인 책략인 협상을 제외한 후,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의 3가지 하위유형으로 재구성하였다. 또한, 기존의 갈등책략 척도가 국내에서 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신고 시 자주 보고되는 ‘스토킹 및 행동통제’, ‘사이버 폭력’, ‘경제적 폭력’ 및 ‘감금 및 납치’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제한점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경찰에게 자문을 구해 해당 피해 내용의 4가지 하위유형과 관련 문항을 추가하였고, 최종적으로 7가지 하위유형의 총 46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자들은 각 문항에 해당되는 상황을 교제하는 1년 동안 몇 회 이상 경험하였는지, 0회(1점)부터 1~5회(2점), 6~10회(3점), 11~15회(4점), 16회 이상(5점)의 Likert 형태로 심각도 수준을 평가하였다. Straus 등(1996)의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앞서 제시된 순서에 따라 각각 .86, .79, .86, .87, .95이었고, 본 연구에 활용된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신체적 폭력 .95, 정서적 폭력 .75, 성적 폭력 .80, 사이버 폭력 .88, 경제적 폭력 .83, 스토킹 및 행동통제 .84, 감금 및 납치 .84로 나타났다.

한국판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Korean version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Scale, BPDS)

본 척도는 개인의 경계선 성격장애의 증상

및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홍상환과 김영환(1998)이 Morey(1991)가 개발한 성격평가검사(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AI) 중 경계선 성격장애의 핵심 특징만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선택해 번안한 것으로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하위요인으로는 ‘정서적 불안정성’, ‘정체감 문제’, ‘부정적 대인관계’, ‘자기손상’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0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3점(매우 그렇다)까지의 Likert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경계선 성격특성이 두드러지는 것을 의미하며, 39점 이상일 경우에는 임상집단 수준의 경계선 성격문제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홍상환, 김영환, 1998). 번안된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5로 나타났다.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척도(Complex Posttraumatic Stress Scale)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적 외상 경험의 증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Pelcovitz 등(1997)이 개발한 ‘극단적 스트레스 장애를 위한 구조화된 면접지(Structured Interview for Disorders of Extremes Stress, SIDES)를 국내에서 정지선과 안현의(2008)가 자기보고식 척도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척도의 하위요인으로는 ‘정서적 각성 조절 기능의 변화’, ‘주의력과 의식 기능의 변화’, ‘자기 인식의 변화’, ‘타인과의 관계 변화’, ‘신체화 증상’, ‘의미 체계의 변화’가 있으며,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0점(전혀 없음)에서부터 4점(거의 매일)의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 해석되며, 6개의 준거 중 3개 이상에 해당되면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이 가능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번안된 척도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하위요인별 .72~.85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합치도는 .94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 지수 검사(Korean version of Resilience Quotient Test, K-ROQ)

응답자들의 회복탄력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이 개발한 한국형 회복탄력성 지수 검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하위요인은 다시 3가지 특징으로 구분되어 총 9가지 측면을 평가하도록 고안되었다. ‘통제성’의 하위유형에는 ‘원인분석력’, ‘감정통제력’, ‘충동통제력’이 있고, ‘긍정성의 하위유형으로는 ‘감사하기’, ‘생활만족도’, ‘낙관성’이 있으며, ‘사회성’의 하위유형은 ‘관계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공감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7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의 연구에서 척도의 전체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척도(Social Support Scale)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1985)이 개발한 척도를 김연수(1995)가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의 가족, 친구, 선후배, 친척 등과 같이 다양한 주변관계로부터 받는 주관적인 사회적 지지 수준을 평가하도록 하며,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유형으로는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가

있으며,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수준이 좋은 것으로 해석되며, 김연수(1995)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5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96이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2 통계 프로그램과 SPSS Process Macro 3.1(Hayes, 2017)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각 유형별로 1년 간 1회 이상 폭력을 경험했다고 보고한 비율과 이 중 가장 높은 빈도수로 응답한 세부 문항을 분석하였고,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수준과 경계선 성격 발현에 있어 여러 유형의 데이트폭력을 중복 경험한 경우와 단일 폭력 유형을 경험한 유형 간 차이가 있는지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여 응답자들이 경험한 데이트폭력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각 측정변인 간 상관관계를 검토하고자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였으며, 데이트폭력 유형 각각이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과 경계선 성격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데이트폭력 경험과 경계선 성격 경향성의 관계에서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지정하여 검증하였고, 이후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활용하여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정선호, 서동기, 2016; Baron & Kenny, 1996; Muller, Judd, & Yzerbyt, 2005). 다음으로 Process model 1에 대입하여 데이트폭력 경험이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과정 및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가 경계선 성격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Preacher, Rucker, & Hayes, 2007). 데이트폭력 경험이 경계선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지지를 통한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model 14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절효과 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독립변인, 매개변인, 조절변인의 값을 평균중심화한 후,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였다(Hayes, 2017).

결 과

데이트폭력 유형별 경험 빈도 및 특성

수집된 응답자들의 데이트폭력 유형별 빈도와 특성을 살펴본 결과, 1년 동안 1회 이상의 스토킹 및 행동통제를 경험한 사람들이 전체 응답자 중 289명(66.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성적 폭력으로 253명(58%)이었으며, 정서적 폭력은 239명(54.8%), 신체적 폭력 65명(14.9%), 경제적 폭력 37명(8.5%), 사이버 폭력과 감금 및 납치가 각각 모두 26명(6%)의 순서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던 스토킹 및 행동통제의 구체적인 피해 양상으로는 '나의 의지를 무시하고 자신의 마음대로만 행동하려 했다'가 230명(52.8%)으로 우세한 응답률을 보였고, '내가 통화할 때 엿듣거나 핸드폰, 다이어리, 우편물 등을 몰래 훑쳐본다', '내가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정보를 묻는다' 순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해나 자살하겠다고 위협한다'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을 해치거나 괴롭히겠다고 위협한다'

등의 극단적인 형태에 대해서도 각각 24명(5.5%), 14명(3.2%)이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 성적 폭력에서는 ‘나의 기분이나 의사와 상관없이 입맞춤이나 포옹을 한다’와 ‘나의 기분이나 의사와 상관없이 가슴, 엉덩이, 성기를 만진다’가 각각 145명(33.3%), 139명(31.9%)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오랄이나 항문성관계를 강요하거나 강제로 맺는 것’, ‘콘돔 및 피임기구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강제로 맺는 것’이 뒤이어 각각 70명(16.1%), 68명(15.6%)으로 확인되었으며, ‘나에게 일부러 성행위 전술이나 환각제를 먹였다’도 16명(3.7%)이 응답하여 다양한 피해 양상이 보고되었다. 정서적 폭력의 형태로는 ‘나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고향을 친다’가 154명(35.3%)으로 가장 많았고, ‘못생겼다 하거나 똥똥하다는 등 외모에 대해 비난한다’(18.8%), ‘욕을 한다’(18.1%), ‘던지거나 때릴 것이라 위협한다’(7.1%), ‘물건을 부순다’(6%) 순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에서는 ‘세계 밀거나 힘으로 압박한다’(10.8%), ‘나에게 다칠만한 것을 던진다’(5.5%), ‘발로 찬다’(4.6%), ‘목을 졸라 질식한 뻘한 적이 있다’(2.5%) 등의 순서로 응답하였으며, 경제적 폭력에서는 ‘나의 물건이나 돈을 허락없이 함

부로 사용한다’(6.9%), ‘상습적으로 돈을 빌려달라 요구하며 빌린 후 갚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2.5%)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한 가지 유형의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176명(40.4%)으로 가장 많았으며, 두 가지 유형의 폭력 경험은 125명(28.7%), 세 가지 유형을 중복 경험한 경우는 76명(17.4%), 네 가지 유형이 36명(8.3%)이었고, 이후 다섯 가지부터 일곱 가지의 유형을 중복 경험한 경우는 각각 11명(2.5%), 2명(0.5%), 10명(2.3%)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응답자들의 데이트폭력 중복 경험 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자, 1년 간 한 가지 유형의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집단과 두 가지 이상의 폭력 유형을 경험한 집단을 구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수준($t = -4.671, p < .001$)과 경계선 성격 경향성($t = -2.857, p < .01$)은 1년 동안 두 가지 이상의 데이트폭력 유형을 경험한 피해자들과 한 가지의 폭력 유형을 경험한 피해자들 간 집단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1).

표 1. 데이트폭력 중복 경험 집단과 단일 경험 집단의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및 경계선 성격 경향성 비교 결과

	중복경험 집단 n=260	단일경험 집단 n=176	t
	M(SD)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73.312 (19.964)	64.921 (17.265)	-4.671***
경계선 성격 경향성	25.558 (7.451)	23.455 (7.451)	-2.857**

주. ** $p < .01$, *** $p < .001$

측정변인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각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Pearson 상관계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에서 나타나듯이, 데이트폭력 경험은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r=.29, p<.001$) 및 경계선 성격 경향성($r=.11, p<.05$)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회복탄력성($r=-.12, p<.05$), 사회적 지지($r=-.13, p<.01$)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와 각 유형의 데이트폭력은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어, 정서적 폭력($r=.28, p<.001$), 신체적 폭력($r=.27, p<.001$),

성적 폭력($r=.26, p<.001$), 사이버 폭력($r=.25, p<.001$), 경제적 폭력($r=.18, p<.001$), 스토킹 및 행동통제($r=.23, p<.001$), 감금 및 납치($r=.26, p<.001$)로 나타났다. 또한, 데이트폭력의 모든 하위유형들은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경계선 성격 경향성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들 중 대부분의 경우가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신체적 폭력($r=.09, p=ns$)과 경제적 폭력($r=.07, p=ns$), 스토킹 및 행동통제($r=.05, p=ns$), 감금 및 납치($r=.08, p=ns$)는 경계선 성격특성과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고, 경

표 2. 측정변인들 간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											
2	.80**	-										
3	.93**	.70**	-									
4	.87**	.57**	.74**	-								
5	.85**	.57**	.85**	.73**	-							
6	.77**	.50**	.77**	.66**	.72**	-						
7	.88**	.65**	.73**	.71**	.68**	.57**	-					
8	.84**	.59**	.83**	.70**	.78**	.71**	.68**	-				
9	.29**	.28**	.27**	.26**	.25**	.18**	.23**	.26**	-			
10	-.12*	-.13**	-.11*	-.10*	-.12*	-.05	-.09	-.06	-.38**	-		
11	-.13**	-.13**	-.12**	-.09	-.13**	-.07	-.11*	-.08	-.33**	.69**	-	
12	.11*	.13**	.09	.12*	.11*	.07	.05	.08	.55**	-.43**	-.26**	-
M	52.06	8.42	11.68	11.72	3.17	3.22	11.73	2.12	69.92	92.22	87.04	26.94
SD	12.20	2.41	2.94	3.09	0.90	0.95	3.24	0.61	19.34	12.73	13.83	8.78

주1. N=436

주2. * $p<.05$, ** $p<.01$

주3. 1: 데이트폭력 전체, 2: 정서적 폭력, 3: 신체적 폭력, 4: 성적 폭력, 5: 사이버 폭력, 6: 경제적 폭력, 7: 스토킹 및 행동통제, 8: 감금 및 납치, 9: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10: 회복탄력성, 11: 사회적 지지, 12: 경계선 성격 경향성

제적 폭력($r=-.05, p=ns$)과 스토킹 및 행동통제($r=-.09, p=ns$), 감금 및 납치($r=-.06, p=ns$)도 회복탄력성과 상관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또한 성적 폭력($r=-.09, p=ns$), 경제적 폭력($r=-.07, p=ns$), 감금 및 납치($r=-.08, p=ns$)는 사회적 지지와도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는 회복탄력성($r=-.38, p<.001$), 사회적 지지($r=-.33, p<.001$)와 모두 부적 상관을 보였고, 경계선 성격 경향성($r=.55, p<.001$)과는 상대적으로 높은 정적 상관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경계선 성격 경향성은 데이트폭력 피해 및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반면, 회복탄력성($r=-.43, p<.001$), 사회적 지지($r=-.26, p<.001$)와는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데이트폭력 피해 유형이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와 경계선 성격 경향성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데이트폭력의 7가지 유형이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와 경계선 성격 경향성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독립변인에 데이트폭력의 각 유형을 투입하고, 종속변인에 각각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경계선 성격

경향성을 지정한 후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데이트폭력 유형이 경계선 성격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정서적 폭력만이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2.735, p<.01$).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에 미치는 데이트폭력의 유형으로는 정서적 폭력($t=3.340, p<.01$)과 감금 및 납치($t=2.590, p<.05$)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정서적 폭력이 감금 및 납치에 비해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이 조금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3). 회귀분석 결과, 데이트폭력의 하위유형 중 정서적 폭력만이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와 경계선 성격 경향성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검증된 바, 이후 조절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에서는 데이트폭력 중 정서적 폭력만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서적 폭력 피해와 경계선 성격 경향성 관계에서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데이트폭력 유형 중 정서적 폭력이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를 매개로 경계선 성격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4를 활용하였고, 정서적 폭력을

표 3.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와 경계선 성격 경향성에 대한 데이트폭력 유형별 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VIF
경계선 성격 경향성	(상수)	22.941	1.520		15.097***	
	정서적폭력	.475	.174	.130	2.735**	1.000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상수)	47.223	3.563		13.253	
	정서적폭력	1.527	.457	.190	3.340**	1.542
	감금/납치	4.646	1.794	.147	2.590*	1.542

주. * $p<.05$, ** $p<.01$, *** $p<.001$

표 4. 정서적 폭력 경험과 경계선 성격 경향성 관계에서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t	95% CI		F	R ²
					LL	UL		
정서적 폭력	복합외상	2.229	.371	6.016***	1.501	2.957	36.194***	.077
정서적 폭력	경계선성격	.475	.174	2.736**	.134	.816	7.483**	.017
정서적 폭력	경계선성격	-.091	.152	-.597	-.390	.208	95.174***	.305
복합외상		.254	.019	13.408***	.217	.291		

간접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랩 검증 결과

	간접효과	Boot SE	LL 95% CI	UL 95% CI
복합외상	.566	.097	.374	.762

주. * $p < .05$, ** $p < .01$, *** $p < .001$

독립변인으로, 경계선 성격 경향성을 종속변인으로,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를 매개변인으로 투입하여 단순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 제시했듯이 분석 결과, 정서적 폭력은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B=2.229$, $t=6.016$, $p<.001$), 정서적 폭력 피해 수준이 높을수록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정도도 높아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정서적 폭력 피해 수준은 경계선 성격 경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B=.475$, $t=2.736$, $p<.01$), 정서적 폭력 피해와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를 독립변인으로 동시 투입했을 시,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는 경계선 성격 경향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B=.254$, $t=13.408$, $p<.001$), 정서적 폭력은 경계선 성격 경향성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지 않아($B=-.091$, $t=-.597$, $p=ns$),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가 정서적 폭력 피해와 경계선 성격 경향성을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 5000회 반복 추출)을 활용하여 확인한 결과, 정서적 폭력 피해가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를 통해 경계선 성격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374~.762]로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표 4), 정서적 폭력 피해와 경계선 성격 경향성에 대한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의 완전매개모형이 검증되었다.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 검증

정서적 폭력 피해와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회복탄력성이 정서적 폭력과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Process Macro의 model 1을 지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에 제시하였듯이 결과적으로 회복탄력성의 부적 효과가 유의하여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는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났으나($B=-.530$,

표 5. 정서적 폭력 경험과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B	SE	t	95% CI		R ²	F
				LL	UL		
정서적폭력	1.841	.387	4.750***	1.079	2.602		
회복탄력성	-.536	.066	-8.096***	-.666	-.406	.199	35.805***
정서적폭력×회복탄력성	-.003	.033	-.084	-.067	.062		

주. *** $p < .001$

$t = -8.019, p < .001$), 정서적 폭력 경험과 회복탄력성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바, 정서적 폭력 경험과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 = .005, t = .875, p = ns$).

정서적 폭력 피해와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정서적 폭력 피해와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동일하게 Process Macro의 model 1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가 감소한다는 부적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 = -.417, t = -6.782, p < .001$), 정서적 폭력 경험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은 유

의하지 않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 = .008, t = 1.671, p = ns$) (표 6).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와 경계선 성격 경향성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회복탄력성이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와 경계선 성격 경향성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Process Macro의 model 1을 지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 모두 경계선 성격 경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는 경계선 성격 경향성에 정적 효과($B = 225, t = 11.309, p < .001$)가 있는 반면, 회복탄력성은 부적 효과($B = -.178, t = -6.253, p < .001$)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와 회복

표 6. 정서적 폭력 경험과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B	SE	t	95% CI		R ²	F
				LL	UL		
정서적폭력	2.183	.383	5.705***	1.431	2.936		
사회적지지	-.420	.062	-6.808***	-.542	-.298	.172	29.824***
정서적폭력×사회적지지	.045	.025	1.769	-.005	.094		

표 7.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와 경계선 성격 경향성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B	SE	t	95% CI		R ²	F
				LL	UL		
복합외상	.225	.020	11.309***	.186	.264		
회복탄력성	-.178	.028	-6.253***	-.234	-.122	.375	64.767***
복합외상×회복탄력성	.004	.001	3.115**	.002	.007		

회복탄력성 수준에 따른 단순회귀선 유의성 검증				
	B	SE	LLCI	ULCI
-1SD(-12.7347)	.172	.023	.127	.217
M	.225	.020	.186	.264
+1SD(12.7347)	.278	.029	.221	.335

주. ** $p < .01$, *** $p < .001$

탄력성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B = .004$, $t = 3.115$, $p < .01$),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와 경계선 성격 경향성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표 7).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의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수준 및 회복탄력성 수준의 M-1SD, M, M+1SD에 따라 상하 집단으로 구분하여 회귀식을 도출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두 회

귀선의 기울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에 제시된 그래프를 보면, 회복탄력성의 조건에 따라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와 경계선 성격 경향성의 관계가 달라지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즉,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수준이 경계선 성격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이 회복탄력성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이 지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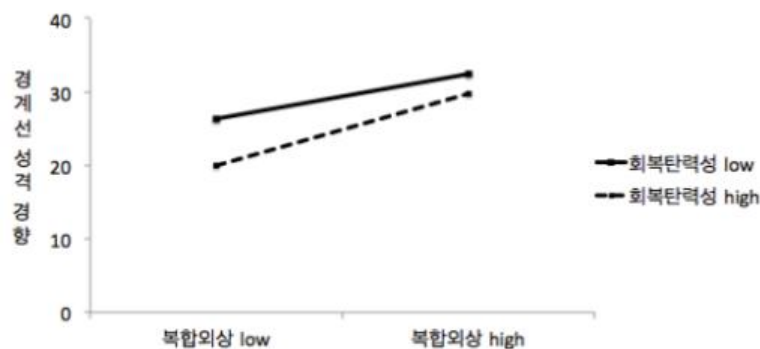


그림 2.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와 경계선 성격 경향성 간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주. 점선이 회복탄력성 high, 직선이 회복탄력성 low임.

정서적 폭력과 경계선 성격 경향성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을 통한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의 조절된 매개효과

앞서 정서적 폭력 피해와 경계선 성격 경향성의 관계에서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및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와 경계선 성격 경향성의 관계에 대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가 유의함을 검증하였다.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해 종속변인에 미치는 간접효과와 크거나 방향이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Process Macro model 14를 활용하였으며, 표 8에 제시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경계선 성격 경향성에 유의한 영향이 있으며 ($B=0.004, t=3.115, p<.01$),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의 단일 효과에 비해($B=.225, t=11.309, p<.001$) 수치가 감소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회복탄력성의 완충효과가 시사된다. 매개변인과 조절변인에 의한 간접효과를 확인

하고자 조절변인인 회복탄력성의 $M-1SD, M, M+1SD$ 값을 활용하여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와 크기와 95% 신뢰구간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회복탄력성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간접효과와 값도 증가함을 확인하였으며, 세 수준 모두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바, 정서적 폭력 피해,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와 경계선 성격 경향성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조절된 매개효과를 지닐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와 경계선 성격 경향성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사회적 지지가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와 경계선 성격 경향성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Process macro의 model 1을 지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지지 ($B=-.073, t=-2.679, p<.01$)와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B=.251, t=12.631, p<.001$)가 경계선 성격

표 8. 회복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종속변인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종속변인 경계선 성격특성		
	B	SE	t	B	SE	t
정서적폭력	2.229	.371	6.016***	-.113	.145	-.785
복합외상				.225	.020	11.309***
회복탄력성				-.178	.028	-6.253***
복합외상×회복탄력성				.004	.001	3.115**
	조건부 간접효과		Boot SE	LL 95% CI		UL 95% CI
저 회복탄력성	.383		.084	.239		.552
고 회복탄력성	.620		.113	.408		.857

주. ** $p<.01$, *** $p<.001$

경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B=.004, t=3.133, p<.01$), 사회적 지지가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와 경계선 성격 경향성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와 조절변인인 사회적 지지의 M-1SD,

M, M+1SD 점수를 바탕으로 회귀식을 도출하여 조절효과 형태를 확인하였다. 앞서 활용한 방식과 동일하게 단순회귀선들의 기울기와 통계적 유의성 검증한 결과는 각각 그림 3과 표 9에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두 회귀선의 기울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바,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와 경계선 성격 경향성의 관계가 조절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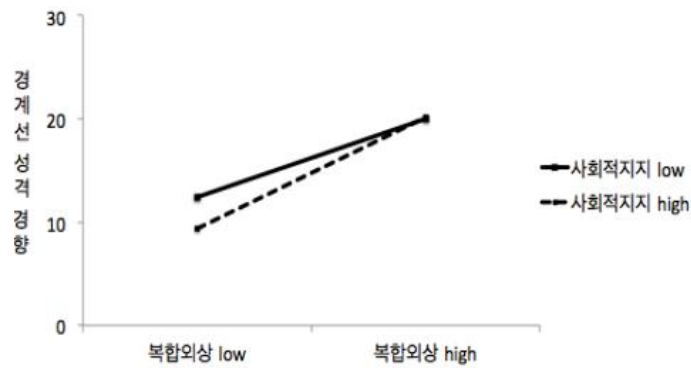


그림 3.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와 경계선 성격 경향성 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주. 점선이 사회적 지지 high, 직선이 사회적 지지 low임.

표 9.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와 경계선 성격 경향성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B	SE	t	95% CI		R ²	F
				LL	UL		
복합외상	.251	.020	12.631***	.212	.290		
사회적지지	-.073	.027	-2.679**	-.127	-.020	.327	52.346***
복합외상×사회적지지	.004	.001	3.133**	.001	.006		
사회적지지 수준에 따른 단순회귀선 유의성 검증							
	B	SE	LLCI	ULCI			
-1SD(-13.8258)	.203	.023	.157	.248			
M	.251	.020	.212	.290			
+1SD(13.8258)	.299	.027	.246	.352			

주. ** $p<.01$, *** $p<.001$

된 그래프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가 경계선 성격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아지는 양상이 나타나기는 했으나,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 경우에 효과성이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반면,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시에는 경계선 성격 경향성에 미치는 효과를 감소시키는 영향력이 다소 약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정서적 폭력과 경계선 성격 경향성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를 통한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의 조절된 매개효과

정서적 폭력 피해,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와 경계선 성격 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에 의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SPSS Macro Process의 model 14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표 10),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가 경계선 성격 경향성에 유의한 영향이 있으며($B=.004, t=3.133, p<.01$),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의 단일 영향력에 비해($B=.251, t=12.631, p<.001$) 수치가 감소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바, 사회적 지지가 완충효과를 보이고 있음이 시사된다. 매개변인과 조절변인에 의한 간접효과를 확인하고자 조절변인인 사회적 지지의 M-1SD, M, M+1SD값을 활용하여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크기와 95% 신뢰구간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간접효과 크기가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세 수준 모두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적 폭력이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를 통해 경계선 성격 경향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조건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10.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종속변인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종속변인 경계선 성격특성		
	B	SE	t	B	SE	t
정서적폭력	2.229	.371	6.016***	-.122	.150	-.812
복합외상				.251	.020	12.631***
사회적지지				-.073	.027	-2.679**
복합외상×사회적지지				.004	.001	3.133**
	조건부 간접효과		Boot SE	LL 95% CI		UL 95% CI
저 사회적지지	.452		.088	.276		.622
고 사회적지지	.667		.116	.443		.904

주. ** $p<.01$, *** $p<.00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 경험이 경계선 성격 경향성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를 경유하는지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이 과정에서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살펴보았으며, 최종적으로 통합 모형에서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이 경험한 폭력 유형으로는 스토킹 및 행동통제가 가장 많았고, 이후 성적 폭력,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사이버 폭력, 감금 및 납치의 순서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려 하거나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등의 걸로 드러나지 않는 정서적 폭력의 형태가 여러 폭력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양상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신체적 폭력에 비해 걸로 드러나지 않는 폭력이 더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피해자들의 지각된 불편감이 더 클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Follingstad et al., 1991).

본 연구의 상관분석 결과, 피해자들의 데이트폭력 피해 수준과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경계선 성격 경향성 간에는 서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문제적 경험에 대한 회복 자원이 되는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와는 모두 부적 상관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데이트 상황에서 발생한 폭력 경험과 대인관계적 외상 경험인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와 경계선 성격 경향성은 서로 의미있는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시사되며, 이는 데이트폭력에 의한 스트레스 증상도 동일하게 대인관계적 상황 특수성이 반영되어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Ford, Stockton, Kaltman, & Green, 2006) 및 아동기 외상 경험이 없더라도 성인기 관계 외상이 성격적 특성의 변화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과 맥락적 유사성을 띄고 있다 볼 수 있다(Herman, 1992). 또한, 데이트폭력 유형이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수준과 경계선 성격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는데, 정서적 폭력과 감금 및 납치의 형태가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효했으며, 경계선 성격 경향성에는 정서적 폭력만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관계적 외상 경험의 피해자들은 단순 외상 사건 피해자가 주로 보이는 우울과 불안, 분노 등의 후유증과는 조금은 다른 양상으로 자기 및 타인 지각의 문제, 의미상실의 문제, 세상에 대한 불신감 상승의 문제 등을 호소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즉,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경험되는 자기 및 관계 손상적 경험에 해당하는 정서적 폭력은 예측하지 못했던 단회성 외상 사건에 의해 발생한 후유증과는 다른 양상의 스트레스 증상을 발현시키는 것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복합 외상의 증상과 공유되는 측면이 많은 경계선 성격 경향성과도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Wingenfeld et al., 2011).

데이트폭력 피해 중 정서적 폭력 경험과 경계선 성격 경향성의 관계는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에 의해 완전 매개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를 바탕으로 정서적 폭력 피해 경험 자체가 개인의 성격 경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대인관계적 외상으로 유발된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수준이 경계선 성격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우세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데이트 상황 중 발생한 정서적 폭력 경험 이후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 자가 개인의 성격적 측면에의 손실을 야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외상적 경험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발전시키는 데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음이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어 이러한 방지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몇몇 연구에서는 외상적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개인의 성격적 특징, 예를 들어, 덜 적대적이거나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에는 외상 사건 이후에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촉발되지 않음을 보고하며(Chung, Berger, & Rudd, 2007; Fauerbach, Lawrence, Schmidt, Munster, & Costa, 2000), 어떤 연구에서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 체계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발현을 방지할 수 있으며, 반대로 외상 사건 직후 낮은 사회적 지지 체계를 형성하게 될 시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고 언급하고 있다(Bonanno, Galea, Bucciarelli, & Vlahov, 2007; Pietzak et al., 2009a).

본 연구에서는 개인 내적 자원인 회복탄력성과 외적 자원인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보고자 하였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경험과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경계선 성격 경향성이 모두 개인의 내외적 회복 자원인 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 내적인 통제성과 긍정성, 사회성을 포함하는 회복탄력성 정도가 높을수록 데이트 상황에서

정서적 폭력의 경험 정도와 외상적 사건에 의해 유발된 스트레스 수준 및 경계선 성격적 경향성이 유발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이 시사된다(Janoff-Bulman, 2004; Moore, Varra, Michael, & Simpson, 2010).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데이트폭력에서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경로와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에서 경계선 성격 경향성으로 이어지는 경로 각각에서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와 경계선 성격 경향성의 경로에서만 회복 자원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데이트폭력 피해가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을 높여서 경계선 성격특질로의 성격적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부정적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조절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정서적 폭력에 의한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치료적 개입에서 특히, 안전감, 통제감, 사회적 개입 및 효능감 등 개인의 회복탄력성과 연관된 요소들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요한 치료적 개입일 수 있음이 시사되며, 피해자들의 성격 구조의 변화 및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회복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실제 대인관계적 외상을 경험한 피해자들이 현저한 정서조절의 문제와 더불어 자기개념의 손상, 타인 및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의 활성화 등의 증상 호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에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지지 체계를 재형성 및 재활성화 시키는 것과 자기에 대한 통제감, 효능감의 회복이 중요한 측면이 될 수 있다(Cloitre et al., 2011; Dorrepaal et al., 2014).

반면, 데이트폭력 중 정서적 폭력 피해가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경로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단일 외상 경험과는 달리 일상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의 특성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의 특성을 연구한 미출간 자료에 따르면(김도연, 이기은, 이중현, 2017), 데이트 상황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조차 해당 경험을 종종 사적인 측면으로 여기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려 하며,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상대의 폭력적 행위의 근거를 찾고자 자기비난적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경향이 높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는 바, 사회적 지지와 개인 내적 자원인 회복탄력성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데이트폭력이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경유하여 경계선 성격 특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완충효과를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효과성의 차이도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수준과 상관없이 회복탄력성 수준이 높은 경우 경계선 성격 경향성을 완화시키는 것은 분명하나,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상태에 비해 높을 시 효과성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복탄력성에 비해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은 더욱 미미해짐을 확인할 수 있는 바,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보호요인들의 완충효과 차이 발생 가능성이 시사된다. 그러므로 초기에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시간 경과 및 외상적 경험이 누적됨에 따라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서는 조기 개입을 통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시기에 개인의

보호자원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 시에도 증상 위험성이 간과되어 효율적인 개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 자원인 회복탄력성에 비해 사회적 지지 체계의 효과성이 더 낮아지는 이유로 대인관계적 외상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유아기 학대 및 방임 등과 유사하게 데이트폭력 역시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을 경험한 만큼 사건 이후 제공되는 주변으로부터 심리적 지지나 안정감을 쉽게 지각하거나 발견하고, 동화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시사된다. 이와 더불어,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의 치료적 처치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원인과 관련하여 밝힌 여러 선행 연구에서는 정신병리적 요인 이외에도 신체적 건강 문제나 사회경제적 수준 등 개인 내외부의 여러 요소들의 상호작용 때문일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어(Ford, 2015; Mason et al., 2014), 특정한 대인외상적 사건 경험 이후 개인의 정신 건강 및 성격적 변화나 손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확인하고 이들 간의 복합적인 영향력에 대해 밝히고 추가적인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전까지는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암묵적으로 여성으로 국한시키는 관점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남성 피해자들의 피해 현황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는 바, 후속 연구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데이트폭력 피해 유형의 및 심리적 결과, 보호 요인 등 여러 측면을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해보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와 경계선 성격특성은 공유되는 증상이 많아 개념적 중

복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어, 후속 연구에서는 관계적 외상으로 인한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수준과 관련된 성격적 특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겠다. 셋째,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은 대인관계에서의 반복적인 경험이 발병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1회 이상의 데이트폭력 경험을 반복적인 대인관계 외상으로 정의 내렸으나, 데이트폭력 경험에 의한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수준이 경계선 성격 경향으로 발전하는 것은 장기적인 시간 경과에 따른 효과일 가능성이 있어, 종단 연구의 수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넷째, 데이트폭력 피해 이후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발현을 낮추고, 성격적 안정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개인 내외적인 보호 자원의 종류를 다양하게 확장시켜 살펴본다면, 치료적 개입의 구체적 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된 모든 변인은 자기보고식 질문지에 의해 평가된 것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상황 및 자기 인식 능력 차이에 의해 폭력 경험이나 증상 보고가 정확하지 않거나 개인차가 발생했을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임상적 면접 및 심리평가 등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전국 단위로 실제 데이트폭력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피해자들이 경계선 성격 경향성을 형성하게 되는 과정에서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수준이 갖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회복 자원인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확인한 바, 향후 데이트폭력 피해

자들의 심리치료 개입에서 이러한 요소의 재형성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도연, 이기은, 이종현 (2017). 한국 데이트폭력 실태 및 인식 조사.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 대회 심포지움 발표논문, 2017년 8월 18일. 서울: 세종대학교. 미간행.
- 김연수 (1995). 정신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지지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김에스더, 김정규 (2019). 감사성향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4(2), 451-468.
- 박경은, 유영권 (2017).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심리내면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711-742.
- 박지원 (1985). 사회적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서경현 (2003). 음주 동기, 문제음주 및 음주 가족력과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 61-78.
- 서경현 (2004).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가정폭력 피해와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에 대한 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 147-162.
- 서경현, 김유정, 정구철, 양승애, 김보연 (2010). 데이트폭력에 대한 가부장/비대칭 패러다임과 성-포괄적 모델의 타당성 제고.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4), 781-799.
-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 (2009). 회복탄력성 검

- 사 지수의 개발 및 타당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0(4), 105-131.
- 이수림 (2012). 외상 유형이 외상후성장 및 지혜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대처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3), 319-341.
- 이아람, 김남재 (2012). 복합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특성의 관계에서 자기개념의 중재효과와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2), 227-243.
- 임채영, 정소영, 이명신 (2010). 대학생의 폭력 인식이 테이트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35, 147-179.
- 정선호, 서동기 (2016). 회귀분석을 이용한 매개된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방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1), 257-282.
- 정지선, 안현의 (2008). 청소년 학교폭력의 복합외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1), 145-160.
- 홍상환, 김영환 (1998).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중심으로.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7, 259-271.
- 홍영오, 연성진, 주승희 (2015). 여성 폭력에 대한 연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2, 1-491.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 Newbury Park, CA: Sage.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Arlington, VA: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rntz, A. (1994).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 challenge for cognitive-behavioral therap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2, 419-430.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enight, C., & Bandura, A. (2004). Social cognitive theory of posttraumatic recovery: The role of perceived self-efficac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2, 1129-1148.
- Bonanno, G.A., Galea, S., Bucchiarelli, A., & Vlahov, D. (2007). What predicts psychological resilience after disaster? The role of demographics, resources, and life stres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5, 671-682.
- Boon, S., Steele, K., & Van der Hart, O. (2011). *Coping with Trauma-related Dissociation: Skills Training for Patients and Therapists*. New York, NY: W. W. Norton & Company.
- Campbell, J. C., & Kendall-Tackett, K. A. (2005). Intimate partner violence: Implications for women's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 K. Kendall-Tackett (Eds.), *Handbook of women, stress and trauma* (pp.123-140). New York, NY: Routledge.
- Chung, M. C., Berger, Z., Rudd, H. (2007). Comorbidity and personality traits in patients with different level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following myocardial infarction. *Psychiatry Research*, 152, 243-252.

- Cloitre, M., Courtois, C. A., Charuvastra, A., Carapezza, R., Stolbach, B. C., & Green, B. L. (2011). Treatment of complex PTSD: Results of the ISTSS expert clinician survey on best practice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4*(6), 615-627.
- Cloitre, M., Garvert, D. W., Brewin, C. R., Bryant, R. A., & Maercker, A. (2013). Evidence for proposed ICD-11 PTSD and complex PTSD: A latent profile analysis. *European Journal of Psychotraumatology, 4*, 20706. doi: <http://dx.doi.org/10.3402/ejpt.v4i0.20706>.
- Cloitre, M., Stolbach, B. C., Herman, J. L., Van der Kolk, B., Pynoos, R., Wang, J., & Petkova, E. (2009). A developmental approach to complex PTSD: Childhood and adult cumulative trauma as predictors of symptom complexity.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2*(5), 399-408.
- Coker, A. L., Davis, K. E., Arias, I., Desai, S., Sanderson, M., Brandt, H. M., & Smith, P. H. (2002). Physical and mental health effect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for men and women.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23*, 260-268.
- Cornelius, T. L., Shorey, R. C., & Beebe, S. M. (2010). Self-reported communication variables and dating violence: Using Gottman's marital communication conceptualization. *Journal of Family Violence, 25*(4), 439-448.
- Courtois, C. A., & Ford, J. D. (2013). *Treating complex trauma: A sequenced relationship-based approach*. New York, NY: Guilford.
- Dorahy, M. J., Corry, M., Shannon, M., MacSherry, A., Hamilton, G., McRobert, G... Hanna, D. (2009). Complex PTSD, interpersonal trauma and relational consequences: Findings from a treatment-receiving Northern Irish sample.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12*, 71-80.
- Dorrepal, E., Thomaes, K., Hoogendoorn, A. W., Veltman, D. J., Draijer, N., & Van Balkom, A. J. (2014). Evidence-based treatment for adult women with child abuse-related complex PTSD: A quantitative review. *European Journal of Psycho-Traumatology, 5*, 23613. doi: <http://dx.doi.org/10.3402/ejpt.v5.23613>.
- Dorrepal, E., Thomaes, K., Smit, J. H., Hoogendoorn, A., Veltman, D. J., van Balkom, A. J., & Draijer, N. (2012). Clinical phenomenology of childhood abuse-related complex PTSD in a population of female patients: Patterns of personality disturbance. *Journal of Trauma and Dissociation, 13*(3), 271-290.
- Dutton, D. G. (2007). The complexities of domestic violence. *American Psychologist, 62*(7), 708-709.
- Dutton, M. A., Green, B., Kaltman, S. I., Roesch, D. M., Zeffiro, T. A., & Krause, E. D. (2006). Intimate partner violence, PTSD, and adverse health outcom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1*, 955-968.
- Eshelman, L., & Levendosky, A. A. (2012). Dating violence: Mental health consequences based on type of abuse. *Violence and Victims, 27*(2), 215-228.
- Fauerbach, J. A., Lawrence, J. W., Schmidt Jr., C. W., Munster, A. M., & Costa Jr., P. T. (2000). Personality predictors of injury-relate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The Journal of*

-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8, 510-517.
- Fletcher, D., & Sarkar, M. (2013). Psychological resilience: A review and critique of definitions, concepts, and theory. *European Psychologist*, 18, 12-23.
- Follingstad, D., Wright, S., Lloyd, S., & Sebastian, J. (1991). Sex differences in motivations and effects in dating violence. *Family Relations*, 40(1), 51-57.
- Ford, J. D. (2015). Complex PTSD: Research directions for nosology/assessment, treatment, and public health. *European Journal of Psychotraumatology*, 6, 27584. doi: <http://dx.doi.org/10.3402/ejpt.v6.27584>
- Ford, J. D., & Courtois, C. A. (2014). Complex PTSD, affect dysregulation,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nd Emotion Dysregulation*, 1:9.
- Ford, J. D., Steinberg, K. L., & Zhang, W. (2011). A randomized clinical trial comparing affect regulation and social problem-solving psychotherapies for mothers with victimization-related PTSD. *Behavior Therapy*, 42(4), 560-578.
- Ford, J. D., Stockton, P., Kaltman, S., & Green, B. L. (2006). Disorders of extreme stress (DESNOS) symptoms are associated with type and severity of interpersonal trauma exposure in a sample of healthy young wome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1, 1399-1416.
- Grossman, R., Yehuda, R., New, A., Schmeidler, J., Silverman, J., Mitropoulou, V... Siever, L. (2003). Dexamethasone suppression test findings in subjects with personality disorders: Associations with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major depress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0(7), 1291-1298.
- Harned, M. S., Rizvi, S. L., & Linehan, M. M. (2010). Impact of co-occurring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on suicidal women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7(10), 1210-1217.
-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2nd Ed). New York, NY: Guilford.
- Herman, J. L. (1992). Complex PTSD: A syndrome in survivors of prolonged and repeated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5(3), 377-391.
- Kaura, S. A., & Lohman, B. J. (2009). Does acceptability of violence impact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victimization, and commitment levels in emerging adult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Violence*, 24(6), 349-359.
- Laffaye, C., Cavella, S., Drescher, K., & Rosen, C. (2008). Relationships among PTSD symptoms, social support, and support source in veterans with chronic PTSD.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1, 394-401.
- Linley, P. A., Alex, J., & Joseph, S. (2004). Positive change following and adversity: A review.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7(1), 11-21.
- Manganello, J. A. (2008). Teens, dating violence, and media use: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conceptual for future research. *Trauma, Violence, & Abuse*, 9(1), 3-18.
- Mason, S. M., Flint, A. J., Roberts, A. L.,

- Agnew-Blais, J., Koenen, K. C., & Rich-Edwards, J. W. (2014).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and food addiction in women by timing and type of trauma exposure. *JAMA Psychiatry*, 71(11), 1271-1278.
- Mauricio, A. M., Tein, J. Y., & Lopez, F. G. (2007). Borderline and antisocial personality scores as mediators between attachment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Violence and Victims*, 22(2), 139-157.
- Moore, S. A., Varra, A. A., Michael, S. T., & Simpson, T. L. (2010). Stress-related growth, positive reframing, and emotional processing in the prediction of post-trauma functioning among veterans in mental health treatment.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2(2), 93-96.
- Morey, L. C. (1991).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Nishi, D., Matsuoka, Y., & Kim, Y. (2010). Research Posttraumatic growth,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resilience of motor vehicle accident survivors. *Biopsychosocial Medicine*, 4(1), 7.
- O'Keefe, M. (1997).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4), 546-568.
- O'Keefe, M. (2005). Teen dating violence: A review of risk factors and prevention efforts. *National Electronic Network on Violence Against Women*, 1, 1-5.
- Pelcovitz, D., Kolk, B. A., Roth, S., Mandel, F., Kaplan, S., & Resick, P. (1997). Complex PTSD in victims exposed to sexual and physical abuse: Results from the DSM-IV field trial fo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0, 539-556.
- Pietrzak, R. H., Johnson, D. C., Goldstein, M. B., Malley, J. C., Rivers, A. J., Morgan, C. A., & Southwick, S. M. (2009a). Psychosocial buffers of traumatic stress, depressive symptoms, and psychosocial difficulties in veterans of Operations Enduring Freedom and Iraqi Freedom: The role of resilience, unit support, and postdeployment social support. *Journal of Special Operations Medicine* 9, 74-78.
- Prati, G., & Pietrantonio, L. (2009). Optimism, social support and coping strategies as factors contributing to posttraumatic growth: A meta-analysis. *Journal of Loss and Trauma*, 14, 364-388.
- Rademaker, A. R., van Preacher, K. J., Rucker, D. D., & Hayes, A. F.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i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1), 185-227.
- Sabina, C., & Straus, M. A. (2008). Polyvictimization by dating partners and mental health among U.S. college students. *Violence and Victims*, 23(6), 667-682.
-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 Street, A. E., & Arias, I. (2001). Psychological abuse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battered women: Examining the roles of shame and guilt. *Victim Violation* 16, 65-78.

- Sugarman, D. B., & Hotaling, G. T. (1989). Dating violence: Prevalence, context, and risk markers. In M. A. Pirog-Good & J. E. Stets (Eds.).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Emerging social issues* (pp.3-32). New York, NY: Praeger Publishers.
- Taylor, S., Asmundson, G. J. G., & Carleton, R. V. (2006). Simple versus complex PTSD: A cluster analytic investigation.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0*, 459-472.
-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4).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1), 1-18.
- Van der Kolk, B. A., Roth, S., Pelcovitz, D., Sunday, S., & Spinazzola, J. (2005). Disorders of extreme stress: The empirical foundation of a complex adaptation to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8*, 389-399.
- Van Dijke, A., Ford, J. D., Van der Hart, O., Van Son, M. J., Van der Heijden, P. G., & Buhning, M. (2011). Childhood traumatization by primary caretaker and affect dysregulation in patient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nd somatoform disorder. *European Journal of Psychotraumatology, 2*, 5628. doi: <http://dx.doi.org/10.3402/ejpr.v2i0.5628>.
- Walker, L. E. (2012). Battered women syndrome and self-defense. *Notre Dame Journal of Law, Ethics and Public Policy, 6*(2), 321-334.
- WHO. (2010). Preventing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Taking action and generating evidence.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Available at: <https://www.who.int/reproductivehealth/publications/violence/9789241564007/en/www.who.int/reproductivehealth/publications/violence/9789241564007/en>
- WHO. (202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for mortality and morbidity statistics (10th Revision, Clinical Modification).
- Wilson, J. P., Drozdek, B., & Turkovic, S. (2006). Posttraumatic shame and guilt. *Trauma, Violence & Abuse, 7*, 122-141.
- Wingenfeld, K., Schaffrath, C., Rullkoetter, N., Mensebach, C., Schlosser, N., Beblo, T... Meyer, B. (2011). Associations of childhood trauma, trauma in adulthood and previous-year stress with psychopathology in patients with major depression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Child Abuse & Neglect, 35*, 647-654.
- Witte, T. H. & Kendra, R. (2010). Risk recognition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5*(12), 2199-2216.
- Zanarini, M. C., Yong, L., Frankenburg, F. R., Hennen, J., Reich, D. B., Marino, M. F., & Vujanovic, A. A. (2002). Severity of reported childhood sexual abuse and its relationship to severity of borderline psychopathology and psychosocial impairment among borderline inpatient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0*(6), 381-387.
- Zoellner, T., & Maercker, A. (2006). Posttraumatic in clinical psychology: A critical review and introduction of a two component model. *Clinical Psychology Review, 26*(5), 626-653.

원고접수일 : 2019. 10. 15.

수정원고접수일 : 2020. 01. 06.

게재결정일 : 2020. 01. 27.

Influence of Dating Violence on the Borderline Personality Tendency: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Complex Posttraumatic Stress through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Gi-Eun Lee

Jong-Hyun Lee

Do-Yeon Kim

Korea Dating Violence Institut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dating violence on individual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tendency through complex posttraumatic stress. In particular, 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complex posttraumatic stress through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n the influence of dating violence on borderline personality tendency. For this purpose, 436 unmarried women aged 20-39 years who had experiences of dating violence were measured and analyzed levels of dating violence, complex posttraumatic stress, borderlin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as shown between the variable of dating violence,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and complex posttraumatic stress levels, and these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Second, among the types of dating violence assessed, only emotional violence significantly predicted complex posttraumatic stress and borderline personality tendency. Third, the full mediation effect of complex posttraumatic stress was confirm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ating violence and borderline personality tendency. Fourth, there was no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n the path from dating violence to complex posttraumatic stress.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the complex posttraumatic stress level that fully mediated the dating violence had a moderating effect on the borderline personality tendency. Fifth,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it was further confirmed that when the resilience and the social support levels were high, the effect of dating violence mediated by complex posttraumatic stress on the formation of borderline personality tendency was mitigated.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the implications for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interventions for victims of dating violence in the future.

Key words : Dating Violence, Complex Posttraumatic Stress, Borderline Personality Tendency, Resilience, Social Support